‘한계를 넘어라’… 게임에 만화까지 역대 최고 쇼 기대

오늘부터 19일까지 벡스코서 열려
42개국 1037개사 참여, 3328부스
야외 전시 확대… 다양한 이벤트도
‘G-CON’ 화려한 라인업에 기대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3 전경. /최빛나 기자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Game Show and Trade, All Round 2023)’가 오는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정식으로 개최된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지스타 2023’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을 맡아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에는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올해 지스타의 참가사 및 유관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지스타 2023’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

올해 지스타 슬로건은 ‘시야를 넓혀라’는 의미의 ‘익스팬드 유어 호라이즌스(Expand your Horizons)’다. 기존 경험과 지식의 틀, 개인이 설정한 스스로의 범위 또는 한계를 상징하는 ‘호라이즌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올해 지스타는 42개국 1037개사가 참여하는 가운대 전년(2947부스) 대비 12.9% 확대된 3328부스로 개최되는데, 과거 최대 규모였던 2019년(3208부스)를 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게 된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장은 “올해 지스타는 슈퍼얼리버드 신청 당일 제1전시장에 신청 가능한 BTC 대형부스가 소진됐고, 소형부스도 BTC관 및 BTB관 구분없이 7월 말 조기 마감되는 등 게임과 유관업계의 관심으로 최대 규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지스타를 향한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4일간 무엇보다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게임문화 축제를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스타 BTC관은 벡스코 제1전시장 전관, 제2전시장 1층 전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작년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야외 전시의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제1전시장에는 위메이드, 구글플레이, 웹젠, 하오플레이, 세가 퍼블리싱코리아, 하이브로의 야외 전시 부스가 야외주차장에는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야외 전시 부스가 구성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지스타의 핵심 부대행사로 자리 잡은 G-CON 2023은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개최된다.

지스타 단독 컨퍼런스로 진행되는 G-CON 2023은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의 라인업을 뛰어넘는 화려하고 구성진 라인업을 통해 청중을 맞이할 예정이다.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다양한 게임의 디렉터는 물론, 게임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AI, 만화 등 다양한 영역의 주제 구성을 통해 청중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인디 게임 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가 확대 운영된다.

또 올해에는 인디게임 플랫폼인 스토브인디와의 협력으로 ‘지스타 인디 쇼케이스 파워드 바이 스토브인디’ 부스가 제2전시장 1층 BTC관에 마련됐다.

올해 지스타는 전시장 및 야외 이외에도 참관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편의시설,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벡스코 이외에도 부산 주요 지역을 활용한 특별 이벤트가 준비된다.

‘지스타 2023’의 메인스폰서인 위메이드는 18일 저녁8시부터 약 30분 간 해운대 광장과 해수욕장 일대에서 라이팅 드론쇼 & 불꽃 피날레를 진행하는 ‘위메이드 페스티브 나이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 불꽃 드론 총 800대를 동원해, 지스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으로 오후 6시부터는 쓰레기를 채워 반납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어묵 꼬치를 제공하는 플로깅(Ploggi ng)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인촌 장관 “韓 콘텐츠 산업 이끌 게임에 힘 실어줄 것”

지스타 현장방문, 진행상황 등 점검
바우처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 약속
게임 정책, 불필요한 규제 해소 언급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14년만에 지스타 현장을 방문했다. 게임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년만에 ‘지스타2023’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스타 2023 현장을 방문해 행사 진행 상황과 부스 전반을 사전 점검하고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등 게임 현장 행보를 이어나간다.

유장관은 16일 정식 개막하는 지스타 2023 전날에 미리 방문해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통해 게임시장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유 장관은 “게임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게임 업계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는 앞으로 역량 있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에도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 인재원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등 K 게임의 위상을 높이겠다. 현장 목소리에 집중하고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올해 지스타 2023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위메이드의 ‘판타스틱4’를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새로 출시된 게임 중 야구 게임이 가장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장관은 지스타 2023 현장 부스를 둘러봤다.

그는 “14년 전보다 우리나라 게임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보니 매우 놀랍고 자랑스럽다. 몇몇 게임은 직접 시연을 해봤는데 시간가는줄 모르겠더라. 올해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데 수많은 관람객이 오실 예정이라 안전문제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지스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게임산업도 더욱 발전할거라고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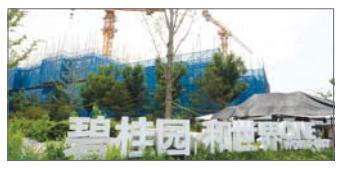
또 현장에서 게임 진흥 정책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국내 게임의 약점인 콘솔게임을 집중지원하고, MMORPG 이외에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성장할수 있도록 인디게임, 신기술 게임 등 제작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등을 통해 업계와 이용자 간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최빛나 기자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빠르면 내년초 늦어도 3분기
▲“3주마다 최대 1조원”…美경제 기후변화 피해 年196조원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48~72시간 내 인질 석방 합의 가능성”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공동성명…“워킹그룹 가동”



▲“中 미완성 부동산 프로젝트, 컨트리 가든의 20배” /사진 뉴시스
▲우크라, 트럼프 ‘우크라 스캔들’ 관련 정치인 반역 혐의 기소